

조르주 상드의 어떤 사회주의 -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 -

박 혜 숙
(연세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조르주 상드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녀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르루와 라므네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인 생시몽과 푸리에등과도 다른 사회주의였다.

또한 상드의 사회주의는 당시 유행하였던 코뮌리즘과도 닮아있었다. 우리는 많은 저술에서 상드를 코뮌리스트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소설도 그녀의 코뮌리즘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코뮌리즘은 마르크스식의 코뮌리즘과는 또 다른 사상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그녀의 소설과 편지 그리고 그녀가 쓴 정치적 격문들 속에 나타난 그녀의 코뮌리즘 사상을 마르크스 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할 것이다. 1.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상드의 코뮌리즘 사상은 비폭력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2. 상드의 코뮌리즘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장한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평등이 아니라면 우리는 논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3. 마지막으로 그녀의 코뮌리즘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 즉 사랑과 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주제어 : 조르주 상드, 공상적 사회주의, 19세기 코뮌리즘, 르루, 라므네, 비폭력주의, 기독교적 사회주의, 인류애적 연대

서문

새로운 유토피아의 구현으로 여겨졌던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실패로 끝난 지금,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각성은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프랑스의 지성자크 아탈리는 『합리적 미치광이』(*Fraternités : une nouvelle utopie*, 2001)¹⁾에서 그 동안 역사적으로 인류가 추구해왔던 유토피아를 세 단계로 나누면서 첫째는 자유를 향한 시민 혁명 둘째는 평등을 향한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우리 시대 마지막 희망으로 인류의 “형제애”(fraternité)를 들고 있다. 바로 자유나 평등이 아닌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유토피아를 말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주의적 코뮌리즘의 예를 라므네(Lamennais)와 르루(Leroux) 그리고 조르주 상드(George Sand)와 같은 19세기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들 중 조르주 상드의 사회주의,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공상적’이란 조롱을 받았던 그녀의 사상을 기독교적 코뮌리즘의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보려는 것이다.

먼저 쇼팽의 연인으로 또 낭만주의 소설가로 유명한 조르주 상드의 사회주의 사상가적 면모를 살펴보면 기실 그녀의 일생은 낭만주의 소설보다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더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쓴 소설도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사회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드는 르루와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독립평론』(*Revue indépendante*)이란 잡지를 만들었으며 사회주의 소설가인 에밀 졸라보다 몇 십 년 전에 불문학 최초의 사회주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스』(*Horace*)와 『어느 노동조합원의 프랑스 순례』(*Le Compagnon du Tour de France*)를 발표했다. 소설 『오라스』는 학생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한 파리 유학생이 겪는 계층사회의 문 제점들과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을 본 『양세계 평론』(*Revue des deux mondes*)의 편집장 벨로즈는 “이것은(『오라스』를 출판한다는 것) 매우 경솔한 행동이며 또한 균중을 선동하기 위해 쉬운 먹잇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라스』를 쓰기 전까지는 코뮌리스트가 아니었어요.”²⁾라고 말한다. 상드의 기독교 사

1) 자크 아탈리, 『합리적 미치광이』, 이세욱 옮김, 중앙 M&B출판, 2001.

2) “Dans l'état du pays et avec le travail des sociétés secrètes, il serait imprudent et

상에 대해 탁월한 분석서를 쓴 안느 슈브로도 상드는 “1841년부터 코뮤니스트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³⁾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녀가 당시 코뮤니스트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소설은 당시 실제 노동조합의 일원이었던 페르디기에(Perdiguier)가 쓴 『노동조합의 책』(*Livre du Compagnonnage*)을 읽고 감동하여 쓴 소설인데 그녀는 페르디기에에게 “인류의 미래는 민중, 그것도 노동자 계급에 있습니다. 당신의 신념이 그렇듯이 저도 그렇습니다.”⁴⁾라는 편지를 쓴다.

상드의 정치적인 글만 모아 『정치와 논쟁』(*Politique et polémique*)를 쓴 미셸 페로도 상드는 여성 사회주의자, 유토피스트로서 독보적이고 예외적인 존재였으며⁵⁾ “그 시대를 통틀어 가장 정치적인 여성 중 하나였다”⁶⁾고 쓰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사상에 있어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Démocratie en Amérique*)를 쓴 토크빌 또한 자신이 여러 사회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오직 상드에 의해서만 (그녀의 코뮤니즘 사상에) 설득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⁷⁾

르루, 라르네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자의 길로 들어선 상드는 1845년 경제적 이유로 또 현실감각이 없는 르루의 이론에 지쳐 그와 결별하게 되고 1848년 2월 혁명 후에는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며 블랑키(Blanqui)와 같은

peut-être coupable de jeter un aliment aussi facile à saisir à l'agitation des masses [...] Vous n'êtes pas communiste, j'espère, du moins, jusqu'à *Horace*.” *Correspondance*, Tome V, Edition de George Lubin, Classiques Garnier, 1987, p. 456.

- 3) “C'est à partir de 1841, que l'épithète de “communiste” se trouve accolée au nom de George Sand.” Chevereau, *George Sand, du catholicisme au paraprotestantisme*, préface de Jean Bauberot, Amor, 1988, p. 116.
- 4) “C'est dans le peuple et dans la classe ouvrière surtout qu'est l'avenir du monde. Vous en avez la foi et moi aussi”, *Correspondance*, Tome V, p. 103.
- 5) Michelle Perrot, *George Sand, politique et polémique*, Acteurs du l'Histoire, 1977, p. 9, 참조.
- 6) “Une des femmes les plus politiques de son temps”, *Ibid.*, p. 34.
- 7) “어제 밤 우리가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사태의 급박함에 대해 정말로 나를 이해시킨 것은 그 유명한 상드부인뿐이었다. Je ne doutais pas que nous fussions à la veille d'une lutte terrible ; toutefois, je n'en compris bien tous les périls que par une conversation que j'eus [...] avec la célèbre Madame Sand.”, Tocqueville, *Souvenir*, cité par G. Lubin, *Correspondance*, Tome VIII, p. 590.

과격파와 교류하게 된다. 하지만 온건파인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한 후 과격파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상드는 고향인 노앙으로 돌아가 정치활동을 접고 칩거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파리 코뮌 이후에는 파리 코뮌의 폭력성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변절자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소설, 서간집, 정치 팸플릿 등을 통해 그녀가 주장하는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첫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폭력없는 정의가 어디있나를 부르짖으며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상드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없는 정의가 어디있나”를 외치는 비폭력주의이다. 둘째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무산계급 혹은 피지배계급을 위한 유토피아 건설이 목적이었다면 상드의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만이 아닌 양쪽 모두를 위한 유토피아이다. 마지막으로 상드는 사회 엘리트나 노동자들이 아닌 지식인에 의한 정신 혁명을 주장하는데 이점은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드의 코뮌리즘은 완전한 기독교적 사랑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I. 비폭력주의

상드 시대에 생시몽이나 푸리에 또 프루동 같은 다른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공통점은 폭력적 수단에 대한 거부였다.⁸⁾ 또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공상적’이란 조롱적 표현을 쓰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베르밀랑은 상드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드는 오늘날에 와서 보자면 사회-민주주의자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소수의 힘에 의한 폭력을 혐오하였으며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식의 모럴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⁹⁾

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고 “박해숙 「조르주 상드의 기독교적 코뮌리즘과 19세기 유토피아 사상 비교」, 유럽사회문화, 2015년” 참조.

그녀에게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더 중요하였으며 그것은 ‘평화주의적 변혁’이었다. 사회주의학자 미셸 페로도 상드의 비폭력주의는 당시 동시대인들의 피에 대한 혐오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민중을 억압하는 폭력뿐 아니라 민중의 폭력에도 반대한다.

그녀는 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행하는 폭력뿐 아니라 민중의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민중의 폭력은 곧잘 맹목적이 되기 십상이어서 대중은 쉽게 폭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시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¹⁰⁾

상드는 바르베스, 블랑키와 함께 코뮌을 주도한 행동대장 루이 블랭과도 친분을 맺고 있었는데 이들은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준 급진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상드는 단지 독재자를 타도하기 위한 폭력적 코뮌리즘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녀가 바란 것은 참된 평등이 실현된 유토피아였다.

만일 코뮌티스트가 독재자를 타도하기 위해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한 음모의 도당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코뮌티스트가 아닙니다. [...] 그러나 당신이 코뮌티스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신다면 물론 우리는 코뮌티스트이고, 또 그렇다고 감히 말할 것입니다. 즉 대중의 양심으로 인정한 모든 방법 덕분에 극단적인 부자와 빈자 사이에 격심한 불평등이 오늘부터 사라지고 참된 평등이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이 코뮌티스트라면 말입니다.¹¹⁾

1871년, 레닌에 의해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라 여겨지는 파리 코뮌이 강제 진압된 피의 일주일 직후 플로베르와 주고 받은 편지에서도 우리는 폭력을 조장하는 자들에 대한 상드의 강한 저항을 엿볼 수 있다. 상드는 폭력

9) Pierre Vermeylen, *Les Idées politiques et sociales de George Sand*, E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1984, p. 211.

10) “Elle désapprouve la violence, [...] violence de la répression d’Etat, mais aussi violence populaire dont elle redoute l’éventuel aveuglement. Les masses sont toujours susceptibles de se transformer en foules. Elle partage avec nombre de ses contemporains l’aversion pour le sang.” Michelle Perrot, *George Sand, politique et polémique*, op.cit., p. 36

11) 앙드레 모르와, 『조르주 상드』, 권영자 역, 울성사, 1978, p. 117에서 재인용.

으로 또 다른 압제자가 된 코뮌리스트들을 “또 다른 교황이며 독재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이 전쟁은 극단적 애국심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 그들은 소위 “실증적인 사회 과학”을 부르짖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소리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는 한 마디도 내보인바 없고 어떤 선언도 한 바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억압과 편견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들은 어이없게도 동시에 자코뱅과 교황과 독재자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공화정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생명력도, 어떤 이성적인 것도, 어떤 조직, 아니 조직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개혁자인양 하는 자들이 벌이는 광란의 파티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념도 원칙도 어떤 진정한 조직도 국가적 연대도 미래에 대한 열림도 없습니다. 무지와 추잡스러움과 야만성이 소위 혁명이라는 것의 전부인 것입니다. 가장 저급한 본능의 발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야망의 불능, 수치심도 없는 횡령의 스캔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광경의 실체인 것입니다.¹²⁾

이러한 광란의 피의 파티 후에 많은 지식인들은 폭력적 공산주의에 넋더리를 내게 되는데 상드는 그들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내면 고백이기도 하다.

이 코뮌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가장 뜨거우며 가장 헌신적인 정치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구토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 번 노력해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원칙이 없는 곳에서는 타협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코뮌을 떠났고 다음 날로 코뮌은 그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그들의 체포를 공포했습니다.¹³⁾

상드는 폭력을 부추긴 지식인들, 그들에게 선동되어 아무 생각없이 학살과 파괴를 저지르는 프롤레타리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 1871년 9월 14일 플로베르에게, *Correspondance*, Tome XXII, pp. 545-555.

13) *Ibid.*

폭동은 이미 부르주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로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습성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주도된 것이지요. 그들은 중요심으로, 좌절된 야망 때문에, 잘못된 애국심으로, 이상도 없는 극단주의로, 유치한 감정 놀음으로 아니면 원래부터의 빼놓아진 성격으로 인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 그들은 분명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거나 숨어버리는 중간 계층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게 한 것은 잃을 것도 하나 없는 진짜 프롤레타리아들이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프롤레타리아도 그들과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에는 가지각색의 이유가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혼란을 틈타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결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대하는 마음에서 모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이제는 극에 달하고, 일거리마저 없어진 마당에 하루 30수를 받으며 전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¹⁴⁾

상드는 여전히 민중 편에 서지만 사형집행인으로 변질돼버린 민중 편은 아니다. 상드는 “만약 오늘날 짓밟히는 자가 민중들이라면 나는 그들을 도울 것이고 만약 민중이 압제자이며 사형집행인이 된다면 나는 그들을 비겁하고 가증스런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¹⁵⁾라고 말한다. 상드는 인간이 이념이란 이름으로 인간에게 가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 상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에 공화국이라 불렀던 그런 피비린내 나는 독재정치가 아니라” “아름답고 선량한 공화국”이라고 강변한다. 또한 그녀는 폭력적인 사회 전복을 “야망에 불타는 사람들의 공적 쌓아올리기 대회”라고 표현하며 자신은 “오직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좀 더 관대한 그런 제도”¹⁶⁾만을 꿈꾼다고 말한다.

상드에게 자유와 평등과 같은 사상은 “건강한 대기와 기름진 땅에서만 자라

14) *Ibid.*

15) *Ibid.*

16) “Il nous faut une belle et bonne république...(non une tyrannie sanglante comme ce qu'on appelait république au temps passé) mais une constitution plus généreuse, plus profitable aux dernières classes de la société, moins exploitée par les ambitieux.”, 1830년 9월 17일 샤를르 피르에게, *Correspondance*, Tome I, p. 704.

나는 자유로운 식물이며 [...] 바리케이드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것을 파리 코뮌 후에 이제야 알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피어난 꽃은 곧 승리자의 발아래 짓밟힐 뿐”이며 또한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은 결국 또 다른 폭력 아래 짓밟힐 뿐”¹⁷⁾이라고 소리친다. 이것은 폭력적이고 전복적인 방식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한 순간에 만들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햇빛과 기름진 땅에서만 자라나는 자유로운 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II. 모두를 위한 평등이 아니라면 논하지도 말자

상드는 여러 글에서 민중에 대한 “본능적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가장 품위 있는 인간 모습을, 가장 진솔한 관계 맺음을, 가장 온유한 미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중에게서입니다. 나는 그들의 순박한 마음을 복잡한 지식보다 더 좋아합니다.”¹⁸⁾라고 고백한다. 또 다음 글을 보면 상드는 민중을 자신들과 동떨어진 다른 계급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한다.

이제 우리를 민중의 친구라는 우스꽝스런 말로 부르지 맙시다. 우리 자신이 바로 민중이니까요. 공공의 범죄의 희생자들로서 공공의 악에 대해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은 물질적 고통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 고통이기 때문입니다.¹⁹⁾

17) 1871년 9월 14일 플로베르에게 쓴 편지, *op.cit.*

18) 1848년 7월 22일 임시 정부에 대항하다 옥에 갇힌 Jérôme-Pierre Gilland에게, “C'est dans le peuple que j'ai trouvé les plus nobles types, les plus sincères attachements, les plus patientes vertus, et cette simplicité de coeur que je préfère à toutes les complications de l'intelligence.” *Correspondance*, Tome VIII, p. 549.

19) 1844년 11월 4일 「L'Eclairneur」 편집장에게, “Ne nous intitulez plus fastueusement les amis du peuple. Nous sommes le peuple nous-même. Ce n'est pas seulement la souffrance physique, c'est encore plus la souffrance morale qui nous rend tous solidaires des maux publics, victimes des crimes publics.”, *Correspondance*, Tome VI, p. 685.

민중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플로베르에게 상드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쓴다.

설사 혈통이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최초의 인류는 사냥꾼 아니면 목동이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농부였거나 군인이었겠지요. [...] 당신은 “민중들이란 항상 사납다”고 말하지만 나는 “귀족들은 항상 야만적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²⁰⁾

이렇게 상드는 계급을 구분하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만을 편들며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에도 반대한다. 다음 예문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들’이란 부분이다. 그녀는 단지 편가르기만을 하는 정치 따위는 죽여버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는 미쳤습니다. 인류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병든 동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특히 친구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프랑스인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 그렇지 않으면 우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치 따위는 죽여 버리고, 거부하고, 없애버립시다. 그것은 우릴 편 가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을 들이대게 할 뿐입니다. 아무에게도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전에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지도 맙시다. 어제까지 우리 모두는 잘못 알았고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면, 모두를 향한 형제애가 아니라면 평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것을 논할 자격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능력도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형제애를 위해 거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오의 참극을 치료해야 합니다. [...] 신념으로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²¹⁾

계층간의 화해는 그녀 소설의 큰 화두이다. 소설 『어느 노동조합원의 프

20) 1871년 9월 14일 플로베르에게 쓴 편지, *op.cit.*

21) *ibid.*

랑스 순례』에서 노동자 피에르는 귀족에 대해 적개심만을 품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비로소 그들도 노동자들의 친구임을 자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 두 계급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나는 빛에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계급에 대한) 나의 적개심은 맹목적인 자만심일 뿐이었습니다. 민중들은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친구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으며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귀가 멀었고 속물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제일 선봉에 선자가 바로 저였지요.²²⁾

다음 대화에서도 상드는 소설의 주인공 피에르의 입을 통해 노동자가 부자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노동자 피에르의 영혼은 천박한 귀족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묘사된다. 고귀한 노동자의 영혼과 귀족의 천박성의 대조는 이 소설의 중심주제이기도 하다.

- 가난해지는 것이 당신의 의무인가요?
- 응, 절대로 부자는 되지 않으려고 해.
- 그러면 부자를 미워하지는 않나요?
- 아니, 왜냐하면 그들은 빈곤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 뿐이니까 말이야.²³⁾

양편을 화해시키고자 했던 상드의 노력은 소설을 쓰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 상드와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던 토크빌의 기록에서도 우리는 양편을 화해시키기 위한 상드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22) “J’ai tenté de fermer les yeux à la lumière, et mes répugnances n’étaient que l’aveuglement de l’orgueil. Le peuple a des amis dans les hautes classes; il les méconnaît et les repousse. Nous sommes sourds et grossiers, moi tout le premier.”, *Le Compagnon du Tour de France*,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88, p. 295.

23) “- tu te fais un devoir de rester pauvre?- Oui, en voulant ne pas devenir riche à tout prix- Et tu ne hais pas les riches?- Non, parce qu’il est dans l’instinct de l’homme de fuir la misère.” *Ibid.*, p. 366.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거리의 인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흥분 시켜 인민을 압박하지 않도록, 당신이 친구들을 만류하여 주십시오. 나도 내 친구들에게 인쇄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겠어요. 왜냐고요. 만일 투쟁이 벌어지면 당신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²⁴⁾

역사 사회학자 미셸 페로도 그녀와 토크빌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사회에 대한 그녀의 깊은 성찰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를 충격에 빠뜨렸다”²⁵⁾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계층간의 화해, 혹은 무산계급뿐 아니라 모든 계급을 위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은 무산계급의 유산계급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하는 폭력적 공산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드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정치적 편가르기이며 계층과 계층간의 정치적 이간질이다.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만들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것밭을 들었건 어떤 인간성이라고 떠들어대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오직 현명한 자와 미친자 그리고 결백한 자와 죄인만을 구별할 뿐입니다. 나는 친구와 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던져진 자들이 바로 나의 친구들입니다. [...] 당신은 신문들이 나를 변절자로 떠들어대며 어떤 신문에서는 그 말을 인용하여 나를 새로운 빛처럼 여기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미래의 꿈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으로 말한다고 했지요. [...] 당 따위에 구애 받지 않는 영혼은 오직 옳으나 옳지 않느냐 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 나의 감정과 이성은 항상 허황된 편가르기와 싸웁니다.²⁶⁾

소설 『어느 노동조합원의 프랑스 순례』에서도 노동 운동가 피에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4) 앙드레 모르와, 『조르주 상드』, *op.cit.*, p. 121에서 재인용.

25) “La profondeur de ses considérations sociales frappe l'auteur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Michelle Perrot, *George Sand, politique et polémique*, *op.cit.*, p. 29.

26) 1871년 9월 14일 플로베르에게 쓴 편지, *op.cit.*

가난한 자가 지금까지 고통을 잘 참아왔으니 이번에는 부자가 그 풍요의 마당을 양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 부자들이 신의 선물을 즐겼으니 이제 그들은 빈곤 속으로 내동댕이쳐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 만약 가난한 자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 이제 당신들이 가난하게 만든 부자들도 그들 자신의 행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²⁷⁾

계층과 계층간의 화합을 상드는 또 다른 말로 “연대의식”(solidarité)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상드가 인류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다. 상드는 이것을 “권리보다 앞서는 의무”²⁸⁾이며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종교이며 시행되어야 할 도덕률”²⁹⁾이라고 말한다. 상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우리를 슬프게만 하는 개인주의”³⁰⁾를 잊어야 한다고 말한다. 페로는 개인주의의 해독제로 이 “연대의식”을 들면서 상드는 “형제애”(fraternité)보다 “연대의식”에 더 무게를 두었다고 설명한다.³¹⁾ 그녀의 자서전 『내 생애 이야기』서문에서도 “우리 시대에 인간 정신의 진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종교적 원천은 바로 인간사이의 연대의식이다”³²⁾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기 시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그 당시 똑똑한 자들이 생각하듯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잘못된 구분이 아니라 연대감의

27) “Dira-t-on que ce pauvre a bien assez supporté la souffrance, et que c'est au tour du riche à lui déder la place au banquet de la vie? De ce que le riche a joui des dons de Dieu jusqu'à ce jour, s'ensuit-il qu'il doive en être violemment arraché pour retomber dans la misère? [...] si le pauvre a droit au bonheur, ce riche que vous aurez fait pauvre aura le droit aussitôt de réclamer sa part de bonheur.” *Le Compagnon du Tour de France*, p. 248-249.

28) “La déclaration des devoirs devait précéder celle des droits.” Michelle Perrot, *Questions politiques et sociales*, Ed. d'Aujourd'hui, 1976, p. 75에서 재인용.

29) “C'était toute une religion à faire, toute une doctrine à formuler.” *Ibid.*

30) “l'inévitable mais triste notion de l'individualisme” *Souvenirs de 1848, Question de demain*, Editions Slatkine, Reprint, 1980, p. 116.

31) “Elle condamne l'individualisme dont l'antidote est la solidarité qu'elle préfère à la fraternité.” Michelle Perrot, *George Sand, politique et polémique, op.cit.*, p. 35.

32) “La source la plus vivante et la plus religieuse du progrès de l'esprit humain, c'est pour parler la langue de mon temps, la notion de solidarité.” dans l'introduction de *Œuvres autobiographiques* de G. Sand,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Georges Lubin, Gallimard, coll. “La Pléiade”, 1970-1971.

완전한 상실”³³⁾때문이라고 말한다. 파리 코뮌 후에도 “대중들, 다수의 집단이란 언제나 늘 가증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³⁴⁾라고 말하는 플로베르에게 상드는 “당신은 내게, 민중들이란 항상 난폭하고, 성직자들은 위선자들이며, 부르주아들은 비겁자들이고, 군인들은 강도들이며 농부들은 어리석다고 못 박는군요? [...]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내 동족 내 동포 내 핏줄들로부터 멀어지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고 그 거대한 가족 속에서 나의 작은 가족은 광활한 들판 속에 있는 작은 이삭에 불과한 것인데 말이에요. [...] 결국 우린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린 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서로 저주해서도 안 되며, 같은 인류를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인류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사랑이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³⁵⁾라고 답한다.

이러한 연대의식은 계층사이에 뿐 아니라 노동자 계층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어느 노동조합원의 프랑스 순례』의 주인공인 노동자 피에르는 노동자들이 서로 자기 구역을 나누며 싸우는 것은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를 가리기 위해 아이를 둘로 나누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중요의 칼로 나뉘어진 몸뚱이는 그들의 손에서 단지 죽은 시체가 될 뿐”³⁶⁾이라고 말한다. 어느 계층에서나 “인간 사이의 연대감”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상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드는 계급간 화해를 넘어 '연대의식'에 대한 본질적인 의식변화가 진정한 개혁임을 호소한다.

33) “La grande erreur qui présida à la fomulation des droits de l’homme ne porta pas seulement, comme l’ont pensé des esprits éminents, sur une mauvaise et fausse distinction des droits et des devoirs, mais sur l’absence totale de la notion de solidarité entre les hommes.” *Questions politiques et sociales, op. cit.*, p. 75.

34) *Correspondance Flaubert-Sand*, Flammarion, 1981, pp. 346-348.

35) *Correspondance*, Tome XXII, pp. 545-555.

36) “ce lambeau partagé par le glaive de la haine ne sera plus entre leurs mains qu’un cadavre.” *Le Compagnon du Tour de France*, p. 132.

III.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모럴의 변화

폭력을 반대하고 모든 계층의 연대의식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는 상드에게 혁명은 하나의 종교이다. 그녀에게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의 실현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꿈이다.

나는 앞으로 도래할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역사적 필연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사실들 속에서는 어떤 것도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민중의 동요와 어떤 희망의 빛 또 본능적인 투쟁 같은 것은 보이지만 여기에 그것보다 더 숭고한 ‘자기희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 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인류애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 *sentiment public*도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³⁷⁾

폭력을 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괴로워하는 소설 『오라스』의 주인공의 고백은 상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다. 상드는 혁명과 신앙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한 파리 유학생을 통해 폭력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기독교인의 괴로운 심정을 피력한다.

나는 나를 거의 무신론자로 만드는 혁명적 격정과 나에게 오히려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을 갖게 했던 어린 시절의 신앙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요. 아! 당신이 그 미친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냉혹하게 잔인했었는지를 안다면! 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 살인자들, 이제 는 너희가 죽을 차례다! [...]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37) 1849년 9월 23일 엠마누엘 아라고에게, “J’ai toujours la plus grande foi dans l’avenir de la Démocratie. C’est la Loi de Dieu, la nécessité de l’histoire, mais pour le moment je ne vois point son action dans les faits, et le germe paraît à peine à mes yeux. Je vois bien des agitations, bien des lumières acquises, bien des instincts de lutte, mais la chose suprême, le *dévouement* sans lequel on ne fera rien de durable, le *sentiment public*, l’esprit de véritable fraternité, je n’en aperçois point le progrès sensible et rassurant.”, *Correspondance*, Tome. IX, p. 705.

사로잡혔지요. [...] 어릴 때 배웠던 순종과 겸허의 하나님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³⁸⁾

그녀에게 있어 코뮤니즘이란 하나의 종교이다. 그녀는 “어떤 종교도 힘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말이지요”³⁹⁾라고 편지에 쓴다. 그녀는 “서기 50년 기독교인들처럼 현재 자신이 코뮤니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녀가 서기 50년 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회를 자신의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851년 보카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기 50년이라면 나는 그리스도교도였을 것이지만 지금 나는 코뮤니스트입니다. 코뮤니즘은 몇 세기에 걸쳐 살아나갈 신앙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진보해나가는 사회의 이념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코뮤니즘과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독재적이며 품성이나 습성과 신념 등의 협력 없이 자신들의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⁴⁰⁾

또한 상드는 한 편지에서 그녀를 지치지 않게,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38) “J'étais partagé entre un sentiment révolutionnaire qui me rendait presque athée, et des retours vers la dévotion de mon enfance qui me rendaient compatissant jusqu'à la faiblesse. Ah! si vous saviez comme j'ai été froidement cruel aux trois journées au milieu de mon délire! Je tuais des hommes, et je leur disais: Meurs, qui a fait mourir! [...] Mais je m'y sentais forcé par une impulsion surnaturelle[...] je pensai [...] à ce Dieu de soumission et d'humilité qu'on m'avait enseigné.” *Horace*, p. 183.

39) 1851년 6월 30일 피에르 보카주에게 “Aucune religion ne s'établira par la force. Nous marchons doucement et naturellement à celle là, par le principe de l'association”, *Correspondance*, Tome. X, p. 345.

40) “Je suis communiste comme on était chrétien en l'an 50 de notre ère. C'est pour moi d'idéal des sociétés en progrès, la religion qui vivra dans quelques siècles. Je ne veux donc me rattacher à aucune des formes du communisme actuel puisqu'elles sont toutes assez dictatoriales et croient pouvoir s'établir sans le concours des mœurs, des habitudes et des convictions.”, *Ibid.*

것은 바로 “평등에 대한 종교적이고 철학적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녀의 코뮤니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기독교적 신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⁴¹⁾

상드는 이와 같은 종교적 혁명은 강제적 제도가 아닌 모럴의 변화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긴 혼란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드는 현실적 혼란을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 『어느 노동조합원의 프랑스 순례』에서 상드는 “압제에 신음하는 자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형제애와 평등의 원칙은 지금 필연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라고 말한다. 또 같은 책에서 “불행하게도 지금 내가 하는 막연한 투쟁에서 늘 실패로 끝나기 마련인 화해정신”⁴³⁾이란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늘 실패하기 마련”이란 말은 화해라는 것이 결코 투쟁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먼저 사상이 익을 시간이 필요하며 계몽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노동운동가 피에르는 “그들이 우리에게까지 올라오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내려가는 미친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돕는다고 우리의 손을 더럽혀서는 안되지요. 그들이 우리처럼 손을 씻도록 해야 합니다.”⁴⁴⁾라며 그들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서서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적 변화 없이 아직 계몽되지 못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폭력적 방식으로 혁명을 완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길 만약 “그들이 내일 당장 법을 집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야만적

41) “Ce qui nous rend toujours si ardents à une révolution morale dans l’humanité, c’est le sentiment religieux et philosophique de l’égalité.”, 1841년 12월 27일 샤를르 뒤베르네에게, *Correspondance*, Tome.V, pp. 535-547.

42) “Il se serait dit que le principe de fraternité et d’égalité, toujours en travail dans l’âme des opprimés, subissait en ce moment-là une crise nécessaire.”, *Le Compagnon du Tour de France*, p. 147.

43) “un esprit de conciliation qui malheureusement doit échouer dans les luttes obscures où vous êtes engagé”, *Ibid.*, pp. 150-151.

44) “Donnons-leur le temps de monter jusqu’à nous, et ne faisons pas la folie de descendre à eux. Il ne faut point que nous salissions nos mains pour leur complaire; il faut qu’ils lavent les leurs pour nous ressembler.” *Ibid.*, p. 293.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때를 기다리며 그들이 개화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⁴⁵⁾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갖고 그들을 서서히 계몽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제도적 교육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심성변화이다. 그녀는 “인간적인 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의무교육을 원한다지만 그것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⁴⁶⁾라고 말하며 단지 법만을 가르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성이 악한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악을 더 잘 감추고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만을 찾게 될 뿐”⁴⁷⁾이기 때문이다. 상드는 배운 자들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비난하며 “자기중심적인 욕구만을 부추기는 학식이란 본성적으로 정직한 습성을 가진 프롤레타리아의 무지보다 못한 것입니다.”⁴⁸⁾라고 일축한다. 종교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없듯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코뮌리즘도 먼저 사랑을 납득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조르주 상드의 코뮌리즘을 ‘비폭력적이며’, ‘모두를 위한’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같은 사상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아무 것도 분간 못하는 순진한 이상주의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파리 코뮌의 무자비한 폭력 사태 후 인간 안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지 못한 플로베르의 충고처럼 말이다.

아! 나의 소중한 스승님! 미워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스승님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증오입니다. 스텝크스처럼 큰 눈을 가지고서도 스승님은 세상을 황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5) Ils nous feraient la loi le lendemain, et ce serait la barbarie.[...] il me semble qu'on pourrait les instruire et les aider à se civiliser, en attendant. *Ibid.*

46) 1871년 9월 14일 플로베르에게 쓴 편지, *op. cit.*

47) *Ibid.*

48) *Ibid.*

오직 당신의 가슴에서 나오는 빛일 뿐이었어요. 이제 어둠이 올라오니 당신은 아무 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⁴⁹⁾

여기에 대한 상드의 대답을 우리는 그녀의 소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상드는 소설 *Le Compagnon du Tour de France* 에서 주인공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인류가 실패했던 공화국들 즉 “노예가 필요했던 플라톤과 로마, 스파르타 공화국, [...] 흑인 노예 없이 불가능했던 아메리카 공화국, 간수와 사형집행인 없이 불가능했던 우리들의 혁명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예수의 공화국뿐”⁵⁰⁾이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희망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며 이런 의문을 품어본다. 정말 사랑과 인류애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코뮌니즘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애초에 마르크스 공산주의도 당시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꿈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그들의 생각은 상드의 기독교적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루카치는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서구문명을 파괴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⁵¹⁾하여 “문화 테러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급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 [...] 그리스도교의 도덕윤리관과 일부일처제와 부모와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조롱하라고 부추겼다.”⁵²⁾ 또 아도르노는 전통문화의 정신적 해체를 주장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 느끼는 애착, 가족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도교, 전통적인 성역할과 성에 대한 태도, 애국심을 병리현상이라고 낙인 찍었다.”⁵³⁾

49) *Correspondance Flaubert-Sand, op.cit.*, pp. 346-348.

50) “la république de Platon, tout aussi bien que celles de Rome et de Sparte, est impossible sans les ilotes ... celle des Etats-Unis sans l'esclavage des Noirs, et que toutes celles de notre Révolution sont impossibles sans les geôliers et les bourreaux. Reste donc celle de Jésus-Christ.” *Le Compagnon du Tour de France*, p. 237.

51) *Ibid.*, p.23.

52) *Ibid.*, pp. 24-25.

53) 홍지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북앤피플, 2017년, p.28.

이러한 급진적인 주장들을 볼 때 또 한때 우리 시대 화두였던 “폭력 없는 정의가 어디 있나?”라는 말을 떠올려볼 때 왜 우리는 “사랑 없는 정의가 어디 있나?”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져볼 수 없는 것일까 자문해본다. 이와 같은 질문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님은 우리 시대를 살다간 프랑수아 리코르가 기독교 잡지에 기고한 초기 논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리코르는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서양 사회”는 ‘기독교 사회’로 원문의 “오래된 돌들”(les vieilles pierres)은 십계명의 돌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주의’는 상드가 꿈꾸었던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사회야말로 어떤 **사회주의**, 요컨대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가치관에 더 충실하며, 미국 자본주의나 러시아 공산주의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사회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회라고 나는 생각한다.⁵⁴⁾

54) “Je pressens pour ma part que l’Occident est un lieu privilégié [...] pour inventer un certain socialisme, fidèle aux valeurs que les vieilles pierres nous rappellent, et plus humain sans doute que le capitalisme américain ou le communisme russe [...].”, P. Ricoeur, « Le Chrétien et la civilisation occidentale », *Christianisme social*, 54 (1946), n°5, p.431.

■ 참고문헌

[George Sand의 자전적인 글과 작품]

Œuvres autobiographiques de G. Sand,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Georges Lubin, Gallimard, coll. “La Pléiade”, 2 vol. 1970-1971.

Souvenir et Idées, Calmann Lévy, 1904.

Journal Intime, publié par Aurore Sand, Calmann-Lévy, 1926.

Correspondance, textes réunis, classés et annotés par Georges Lubin, Garnier, coll. “Classiques Garnier”, tome I-XXVI, 1964-1995.

Souvenirs de 1848, Question de demain, Editions Slatkine, Reprint, 1980.

Correspondance, Flaubert-Sand, Flammarion, 1981.

Questions d'art et de littérature, présenté par Henriette Bessis et Janis Glasgow, éd. Des femmes, 1991.

Agendas, présentés et annotés par A. Chevereau, Touzot, tome I-V, 1990-1995.

Horace,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Nicole Courier, Les Editions de L'Aurore, 1982.

Le Compagnon du Tour de France,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88.

[George Sand에 대한 비평서]

Chevereau (Anne), *George Sand, du catholicisme au paraprotestantisme*, préface de Jean Bauberot, Amor, 1988.

Perrot (Michelle), *George Sand, Politique et polémiques*, Acteurs de l'Histoire, Imprimerie Nationale, 1997.

_____, *Questions politiques et sociales*, Ed. d'Aujourd'hui, 1976.

Vermeylen (Pierre), *Idées politiques et sociales de George Sand*, Bruxelles, E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1984.

Wladimir(Karénine), *George Sand, sa vie et ses oeuvres*, Tomes I , II, Lib. Ollendorf, 1899.

Mallet (Francine), *George Sand*, Paris, Grasset, 1976.

Maurois(André), *Lélia ou la vie de George Sand*, Paris, Hachette, 1952

(Nouv.édit.augmentée, 1985).

앙드레 모르와, 『조르주 상드』, 권영자 역, 울성사, 1978.

[기타 참고문헌]

자크 아탈리, 『합리적 미치광이』, 이세욱 옮김, 중앙 M&B출판, 2001.

에릭 홉스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경일 옮김, 까치, 2012.

홍지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북앤피플, 2017년.

P. Ricoeur, “Le Chrétien et la civilisation occidentale”, *Christianisme social*,
54, n^o5, 1946.

❖ ABSTRACT

A Certain Socialism of George Sand
– Dream of a Community of Love –

Park, Haesook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re-examine the utopian socialism of George Sand. In brief, her socialism is Christian socialism. She was heavily influenced by Leroux and Ramennais who insisted on Christian socialism at the time. This was socialism that differed from other utopian socialists of the time such as Saint Simon and Fourier.

In addition, the socialism of Sand was similar to communism that was popular at the time. We can see in many writings portraying Sand as a Communist. Her novels were also written to spread her communicative ideas. However, the Communism of Sand is different from that of Marx. In this thesis, her novels, her letters, and her political pamphlets will b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Marxism in three ways. 1. If Marx's communism justified violence, her ideology is based on nonviolence. 2. Sand's Communism asserts equality for workers and capitalists. She says that if it is not the equality for all, we are not qualified to argue. 3. Finally, her Communism is based entirely on Christian values, love and solidarity.

Key Words : George Sand, Utopian Socialism, 19th Century Communism,
Leroux, Ramennais, Nonviolence, Christian Socialism, Solidarity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